

투데이 칼럼

북한 경제특구 전망

경제특구를 가장 성공시킨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은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경제특구의 건설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사실상 막강한 추진력과 막대한 자금 투자, 적극적인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합쳐져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권에 서서히 통합이 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자기네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경제 특구를 더 확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실험물과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준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한다.

북한은 경제특구를 외부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만나지 못하

도록 철저히 격리 시킨다.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도 조성해 주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키울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호적인 지리적 위치나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등 경제특구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정

은 위원장의 경제특구 선결 과제다.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특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 경제특구가 잘 운영되고 생산품을 수출하게 되면 경제특구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된다.

거기에 참여하는 내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 돈이 국민경제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경제특구에 참여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결국

경제 수준 향상으로 연결된다.

국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경제특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다. 경제특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은 국내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도 전수된다.

경제특구를 통해 첨단 기술도 국내 기업에 전수된다. 기술이 결국 국내 경제를 살리는 중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경제특구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경 지역이나 항만 등에 세워진다. 경제특구 주변 지역에 생산이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 주변 국가들의 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회가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

을 유지하는 쪽에서는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한다. 원인이 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경제특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편법이다. 경제특구에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은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다.

국내 기업이 더 좋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와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상황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특구를 개방해서 외국 기업들의 많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경협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인기가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특혜를 바라고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좋은 기술 이전보다는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 경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특구를 운영하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혜택을 나눠먹는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실제로 경제특구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특구는 투자를 하는 나라와 투자를 받는 나라가 서로 취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는 점이다.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사설

전주 객리단길 문화 행사

전주 객리단길이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댄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청년 창업가들의 플라마켓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주말인 13일과 20일 주말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고사동 옥토주차장 옆 190m 구간에서 객리단길 걷고 싶은 거리 문화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곳은 전주객리단길 47번지에서 전주객리단길 79번지 구간에서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걷고 싶은 거리'로 열렸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행사는 시민 문화 기획단과 인근 주변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문화공연 ▲플라마켓 ▲플레이존·휴식존 ▲트리아트 등을 선보였다.

문화 공연에는 전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뮤지컬 공연부터 댄스 퍼포먼스, 버스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 것이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은 우드레

이بل 35개를 길거리에 깔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을 열었다.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과 휴식존 캐리커처 체험 부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트리아트 공간도 마련됐다.

전주시는 행사 현장 양쪽 끝에 안전 요원을 배치해 오전 10시부터 교통을 통제해 나갔다. 진입로 양쪽에는 손 세정제와 위생 관리 볼품도 비치했다.

앞으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은 객리단길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슬로 시티를 지향하는 전주시 이미지와도 들어맞는 일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의 전주 객리단길 모습을 기대한다.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 나눔 봉사

전주시 지원봉사센터 등록 봉사단체인 '사랑의 나눔'은 2021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이 열렸다.

이번 봉사 활동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새단법인 어울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원봉사 공동체이다. 이날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은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이 주관했다. 그리고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지원했다.

회원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절임배추와 양념을 맛있게 버무리는 등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 감지 담그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나눔 봉사에 계속 참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스스로 아릅답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정성껏 만든 만큼 독거노인들이 맛있게 드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만 이사장은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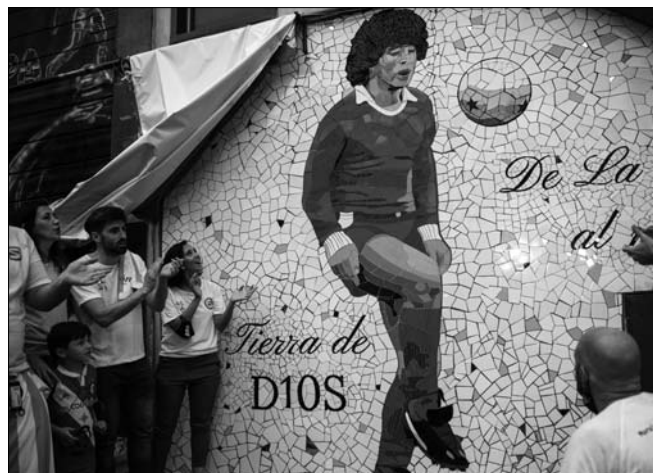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은 해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특히 권명덕 전 회장은 13년 전 이 모임을 정립하고 4년 동안 모임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이날도 부인 정영자씨와 함께 김장김치 나눔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의 지역사회 나눔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라도나 1주기, 새 벽화 완성한 아티스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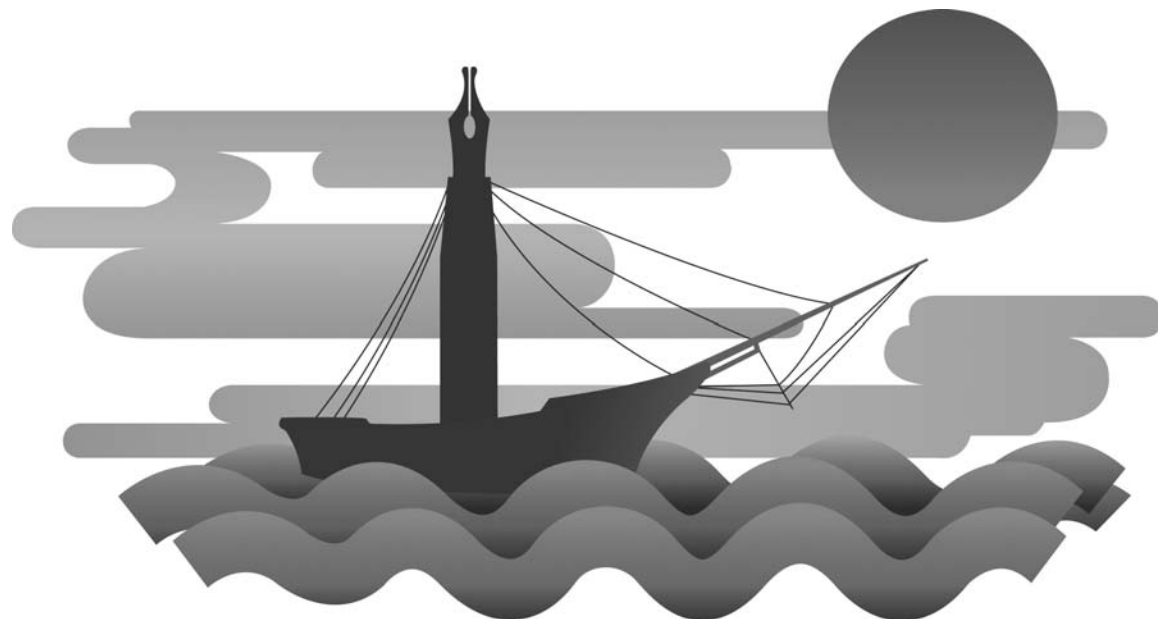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축구 전설 고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1주기인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르헨티나 주니어스 경기장에서 마라도나 벽화를 완성한 아티스트들이 환호하고 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파키스탄 전통음식 '사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의 거리식당에서 한 요리사가 손님들을 위해 전통 닭고기 요리 '사지'(Sajji)를 굽고 있다.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에서 유래한 '사지'는 주로 닭으로 만드는 소금오븐 양념한 음식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